

26 “치료하시는 하나님”, 이 언약을 붙잡고, 제 2RUTC 운동의 “치유 사역의 축복과 미션”에 대해 나누겠다. “ ”, 21세기의 가장 심각한, 시급한 단어이다. 사람들이 갈수록 심각한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. 마지막 때의 징조로 이미 예언된 것이다(딤후3:1).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다. 가장 먼저는 육신적인 질병으로 오는 고통이다. 의사들도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이 많아서 거의 마약 성분의 진통제를 준다. 최근에 미국 정부가 이 문제와 전쟁을 선포할 정도이다. 그 다음이 마음의 고통일 것이다. 불안감, 두려움, 우울증, 그거 해결하려고 빠지는 중독증(마약중독, 알콜중독, 도박중독, 수없는 중독들), 나중에는 공황장애, 정신분열까지 겪게 된다. **제일 무서운 것이 뭐냐? 영적인 고통이다.** 고통이 고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, 영적인 문제로 발전해 버리니까 시달린다. 자기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. 이유 없는 살인, 테러, 사회문제가 된다. 꼭 붙잡을 것 세가지 있다.

1. 어떤 고통 속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치유하시는 분이 라는 사실이다(26절).

- 왜 하나님은 자신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을까?
- 1) 인생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이다. 만드신 이가 고치고, 살릴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. 실패와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인간에게 성경은 한가지 사실을 반복해서 말한다. 인간의 그 모든 실패, 고난, 고통은 하나님을 떠나고,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서 왔다는 것이다. 물고기는 물에서 살고, 나무는 흙에서 살고, 영혼을 가진 인간은 그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“하나님의 형상대로” 지음 받았다는 것이다. 이것이 무너지면서 모든 문제, 고난, 고통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. 그것을 설명한 성경이 창3장이다.
- 2) 창3장에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인가?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을 불순종하고, 그 관계가 깨지면서 모든 문제, 고난, 고통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.
- ① 첫 번째 고통은 원죄의 저주다. 첫 인생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서 시작된 저주다(창3:16-18). 모든 인생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다. 여자는 해산의 고통이다. 눈물과 고통으로 인생이 시작된다는 의미다. 남자는 평생 죽도록 고생해야 겨우 먹고 살 것이다. 모든 병이 여기서 오는 것이다. 마음의 고생, 오래 참고 버티다가 어느날 터지는 것이다(우울증, 공황장애). 육신의 고생, 너무 고생하며 살다보니 몸도 다 망가지는 것이다(스트레스, 신경성, 암). 더 무서운 것은 땅도 저주를 받아 내가 사는 환경도 저주를 받는 것이다.
- ② 두 번째의 고통은 이렇게 고생하는 인생을 계속 도적질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다. 그것이 마귀다(요10:10) 나를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았는데 이해할 수 없는 문제와 고통이 계속되는 것이다. 성경에 하나님 떠난 인생은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다(요8:44). 그래서 각종 종교우상을 만들어 귀신 섬기는 일이 벌어진다. 그런데 그 우상 숭배하는 집안들은 자손 3, 4대가 망한다는 것이다. 마귀가 살아서 영적 대물림을 주는 것이다.
- ③ 세 번째 고통은 영원한 지옥 저주이다. 그렇게 고생하고, 그렇게 영적 문제로 실패하고 고통 당하다 흠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다(창3:19). 무서운 것은 육은 흠으로 가나, 영혼은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는 것이다(히9:27). 내가 죄가 많아서가 아니다. 지은 죄를 해결 못하고(롬6:23), 그 죄의 권세자 마귀를 따라 간 것이다(마25:41)
- 3) 하나님이 이 저주와 고통을 해결하고, 우리를 치유하고 살리기 위해 그 아들을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다. 그 분이 원죄의 저주(롬5:19)와 우리 각자의 죄와 저주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다(사53:5). 이 분이 부활하면서 마귀의 머리를 밟으시고(창3:15), 모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시겠다는 것이다(행10:38) 이 사실을 믿고, 이 사실을 선포하는 성도들을 통해 그 증거를 보이시겠다는 것이다(막16:17-18)

2.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치유 사역을 하실 때 순서가 있다(치유 사역의 시간표)

- 1) 영혼 치유(영적 치유)를 받는 시간이다.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고(계3:20),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다(요1:12). 자녀 되는 순간 우상 숭배하며, 운명 저주, 마귀에게 시달리면 살던 내 인생이 거듭나는 것이다(요3:5).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다(고후5:17). 소속이 바뀐 것이다(요5:24)
- 2) 마음 치유, 생각 치유를 받는 시간이다(정신치유).
- ① 영혼 구원은 그리스도 영접한 순간 단번에 이루어지는 사건이다. 문제는 마음과 생각과 삶의 체질이다. 사단이 오랫동안 틀린 생각, 저주받을 생각을 각인시켜 놓은 것이다(자기 중심, 육신 중심, 세상 중심으로) 그것이 쓴 뿌리, 본문으로 말하면 쓴 물(23절의 “마라의 쓴 물”)처럼 내 감정 속에 남아있다. 삶의 체질이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체질로 굳어져 있다. 그 각인, 뿌리, 체질을 바꾸는 시간표만 남은 것이다.
- ② 어떻게 바꾸냐? 26절에 이제부터 말씀을 듣고,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(집중), 말씀을 따라 가라(묵상과 적용)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고, 말씀으로 치유하시고(히4:12),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(시119:50), 말씀으로 응답하시고(요15:7), 말씀으로 이기게 하신다(엡6:17). 말씀 묵상과 적용하는 시간이 꼭 있어야 한다(포럼)
- ③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이 축복을 못 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? 구원받고도 계속 마귀에게 속고 당한다(엡6:11) 실제로 염려, 두려움, 불신앙에 빠지면 온 몸에 기운이 빠져나간다. 낙심할 때마다 심장 뛰는 횟수가 달라진다. 미움 분노가 생길 때는 혈관이 막힌다. 제일 무서운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고, 답답해진다.
- 3) 이 영혼 치유, 마음 생각 치유하면서 몸도 정상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. 적절한 운동을 하고, 호흡을 깊이 하고, 음식도 조절해서 먹으라(먹지 못해서도 문제이고 너무 먹어서도 문제) 이 세가지를 하면서 24시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보라. 오력이 회복되는 것이다. 인간관계, 경제까지 살아난다.

3. 치유 사역의 결론이다. 마라의 쓴 물이 치유되고, 이스라엘이 들어간 곳이 “엘림”이라는 지역이다.

- 거기에 샘 열둘과 종려나무 칠십주가 있었다고 했다. 뭐가 생각나는가? 12사도와 70인 평신도제자의 비밀이다.
- 1) 지금 내게 문제와 고통이 있는가? 하나님은 나를 그리스도도 치유 받은 증인으로 세우시겠다는 것이다. 그리스도에 집중하면서 시간표대로 따라가라. 나를 살리고, 교회를 살리고, 시대를 살리는 자로 서게 될 것이다.
- 2) 교회의 역할이다. 교회는 치유된 자들의 모임이고, 동시에 치유 받을 자들이 와야 하는 곳이다(눅5:31-32) 그래서 참 교회는 서로 판단과 비방을 멈추고, 불쌍히 여기고, 도와주고, 살리는 일을 해야 한다(엡4:31-32)
- 3) 오직 복음으로만 치유할 수 있는 치유 미션 홀, 치유 학교, 치유 센터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미션이다. 성도 각자가 치유 사역자로 설 수 있기를 바란다. 치유하는 교회 환경이 되기를 바란다. 특히 램넨트 중에는 앞으로 미래를 치유하는 치유 전문인들도 나와야 한다. 참 치유의 축복과 사역이 회복되기를 축원한다.